

# 나눔이 곧 행복의 길입니다



강기갑  
통일유보내기운동추진위원  
민주노동당(국회의원)

모든 인간은 행복(幸福)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학문 탐구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부의 축적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과 명예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등 각양각색의 길을 통하여 행복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나 권력 획득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거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아 이집 저집을 기웃거리 보아도, 이일 저일을 뒤적거리보아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 해매여도 행복을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행복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이웃의 절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누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행복과 만날 수 있는 확실히 보장된 길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며, 그 도움의 청이 생의 절박함이 배어 있을수록 도움으로 인해 절실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복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복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여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나의 자식, 나의 손자, 나의 식구

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하겠습니까?

지난 6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맞이하여 낙농육우협회가 선언한 북한 어린이에게 유보내기 운동인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은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에 나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우리의 가진 바를 나누는 '나눔의 길'입니다.

일제 식민치하와 강대국들의 세력다툼에 의하여 민족 분단의 한을 안고 반세기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자 화해와 평화의 징검다리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주저함은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봉쇄로 말미암아 이북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동포와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한가지 음식으로 필수 영양소를 끌고루 갖춘 완전식품인 우유. 배꼽아 눈물지으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우리가 보내준 우유를 마시며 웃음 짓는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펼치는 나눔의 실천이 이북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 행복과 웃음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행복으로, 더 환한

웃음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웃과 조화롭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실천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소학(四字小學)에 손인이기(損人利己)면 중시자해(終是自害)라는 말씀을 뒤집어 풀어보면 결국 우리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결과”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본의 논리가 세계에 판치고 있는 오늘, 농업강대국들은 식량을 상품, 무기화하여 식량부족으로 인해 굶주림의 절규가 만연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소국의 농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웃과 싸우고 다투더라도 이웃이 굶고 병이 나면 먹을 것을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인심이고 우리민족의 미덕입니다.

지금 남북간에는 통일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이복과 먹을 것을 나누는 일, 그것도 어린 자녀들에게 먹을

이웃과 싸우고 다투더라도 이웃이 굶고 병이 나면 먹을 것을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인심이고 우리민족의 미덕입니다. 배고파하는 이복과 먹을 것을 나누는 일, 그것도 어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 어떤 통일운동에 뒤지지 않는 의미 있는 운동입니다.

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 어떤 통일운동에 뒤지지 않는 의미 있는 운동입니다.

낙농가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시죠?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에게 가진 바를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면 가슴 깊은 곳에서 흐뭇함과 보람을 느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만나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